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전문가 기고

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과
한국의 新 기업가정신 선언

주요 이슈

新 기업가정신과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

ESG 동향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의무화

주요 통계

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과 한국의 新 기업가정신 선언



김선엽 연구원

BRT가 기업이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

2019년 8월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BRT(Business Roundtable)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아마존,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잉,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181개 기업의 CEO가 서명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선언문은 기업이 주주 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언문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근로자에 대한 투자, ▲공정하고 윤리적인 협력업체 대우, ▲지역사회 지원, ▲장기적 주주 가치 창출을 약속했다.

BRT 선언을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종식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주 자본주의는 1970년 밀튼 프리드먼 교수의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는 글로 대표된다. 주주 자본주의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경영에 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BRT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배경에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에 대한 여론의 악화가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BRT가 새롭게 기업의 목적을 선언한 것이다.

BRT 선언 이후 비판이 제기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사회 승인 등 서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RT 선언 참여기업들이 특정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서 더 나쁜 성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BRT는 지난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선언’ 2주년을 맞아 회원기업들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BRT는 회원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지불방식을 유연화했고,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도 늘렸다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기금을 후원도 성과로 들었다.

BRT 선언 기업의 약속과 이행 성과

	기업의 약속(2019)	회원기업 이행 성과(2021)
고객	• 고객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 전달	• 팬데믹 시 회원기업 2/3가 지불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회원기업 1/3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할인
근로자	• 근로자에게 투자 - 공정한 급여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공	• 회원기업 근로자 90%는 중위소득보다 높은 임금 • 팬데믹 시 회원기업 80% 이상이 유급휴가 확대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	• 회원기업 2/3는 소기업 제품 1억달러 이상 구매('20)
지역사회	• 지역사회 지원	• 회원기업 대부분 2천2백만 달러 이상 현금 후원
주주	• 주주들을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	• 회원기업 주주 수익률 40.9%(‘20.8~’21.6)

※ 자료 : BRT(Business Roundtable)

② 기업선언문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출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물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업선언문'에는 76개 기업이 서명했다.

'기업선언문'은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인구절벽, 사회구성원의 행복 추구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다짐하고, 다섯 가지 실천 명제를 제안하고 있다. 실천 명제는 ▲경제적 가치 제고, ▲윤리적 가치 제고, ▲기업문화 향상,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 등이다.

첫번째 명제는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두번째 명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세번째 명제는 조직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네번째 명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는 등 친환경 경영의 실천이다. 다섯번째 명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선언문 선포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ntrepreneurship Round Table, ERT)'를 출범시켰다. ERT는 기업선언문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참여기업에 대폭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RT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에 부합하고,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실천하기로 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하려고 한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지표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이다.

대한상의 '기업 선언문'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인구 절벽,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 직면 기업이 고객은 물론 조직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선언하고 실천하고자 함

- 새로운 기업가정신 실천명제 -

1.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ی겠습니다.
2.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의 권익과 정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협력기업과 공정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3. 조직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 청정한 미래와 더 좋은 삶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5. 일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 :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新 기업가정신과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



김예나 연구원

최근 주요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가정신과 연결되는 이러한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한 新 기업가정신 선포식 이후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요 그룹들이 6월초 기준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만 해도 1,080조 원에 달한다. '기업 선언문'에서 첫번째 실천 명제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6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의 250조 원 투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삼성은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산업에 5년간 179조 원을 투자하고, 5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성장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인재 채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사는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기차, 로봇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등의 그룹사까지 합한 투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은 배터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AI·Data, 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106조 원을 투자하고, 5만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투자는 R&D, 최첨단 생산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롯데그룹이 화학, 유통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3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포스코는 33조 원을 투자하고, 2만 5천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한화그룹도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 국내 투자 및 고용 계획

분야	투자 계획	기간	주요 분야	고용 계획
 삼성	360조 원	~2026	•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AI와 차세대통신) 등	8만 명
 SK	179조 원	~2026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5만 명
 현대차 3사	63조 원	~2025	•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
 LG	106조 원	~2026	• 배터리·배터리소재, AI·Data, 바이오 등	5만 명
 롯데	37조 원	~2026	• 화학·식품·인프라 등	-
 포스코	33조 원	~2026	• 친환경 미래소재, 친환경 인프라 등	2.5만 명
 한화	20조 원	~2026	•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2만 명

※ 자료 : 각사 보도자료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의무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박태호

매년 6월이 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절정에 달한다.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위해 각종 ESG 이슈에 대응하고,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략 수립, 정책 개발,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확립, 성과지표 관리 등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가 되면 지난해 활동과 성과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79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2020년에 비해 2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에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재무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2025년까지는 기업들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2025년 이후에는 일정규모(자산 2조원으로 예상) 이상 기업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에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부분(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98% 이상)은 GRI Standards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GRI Standards를 관장하는 독립기관인 GSSB(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서는 2021년 변경된 기준(Revised Standards)을 발표했고, 해당 기준에는 정유 및 가스산업(Oil & Gas Sector), 석탄산업(Coal Sector)에 대한 산업별 표준(Sector Standard)이 새로 포함되었다. 향후 GSSB는 지속적으로 산업별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40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GRI Standards는 일반공시 30개 지표와 중요이슈 3개 지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경제영역의 17개 지표, 환경영역의 31개 지표, 사회영역의 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비재무 정보의 공시에 관한 기준으로, ISSB는 재무보고 내 일부(Part)로 공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초안(Exposure Draft)은 7월까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의 특징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포함하며, 핵심요소로 지배구조(Governance), 전략(Strat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라는 4가지로 요소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핵심요소는 지난 2017년 공개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정보공개 권고안과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산업별 지표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참조하여 수록해 두었다. 현재의 버전에는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새로운 공시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시점이 2003년이니, 20년이 넘는 기간 GRI는 가이드라인에서 표준으로 진화하며 발전해 왔고, 이제 IFRS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2개의 공시 기준을 놓고 고민할 것이다. 기존 GRI 기준에 더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TCFD와 SASB를 기준으로 공시해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낯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향후 양립하게 될 2개의 기준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던 재무 정보와 더불어 비재무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SG 통계 지표

2022년 6월 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1.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131	135	144	145	151	162	172	183	186
사회적채권	710	747	765	788	794	820	835	871	911
지속가능채권	178	181	199	216	230	233	237	246	272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1.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139	141	148	148	156	168	173	183	185
사회적채권	1,166	1,214	1,247	1,273	1,273	1,306	1,331	1,362	1,395
지속가능채권	153	154	165	180	175	181	182	186	197

2. ESG 평가

국내기업 KCGS ESG 평가(2022)

(단위 : 개)

부문	S	A+	A	B+	B	C	D
종합등급	-	13	170	138	208	222	12
환경	-	11	115	119	162	163	194
사회	-	122	119	115	147	229	31
지배구조	-	13	150	311	203	50	6

자료 : KRX ESG포털

3. 기타 통계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도별 발간 현황

(단위 : 개)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발간	115	108	115	117	122	120	39
최초 발간	217	14	18	16	13	18	9

자료 : 한국표준협회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8월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9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과 한국의 新 기업가정신 선언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

新 기업가정신과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